



붓갈

35×27cm, Oil on canvas, 2023

- 붓과 숟가락. 3D프린터로 만들고 싶은 작업 중 하나. 작업을 하다 보면 손에 붓과 밥숟가락만이 붙어있는 것 같아서 그리게 된 그림.



세사람

45×53cm, Oil on canvas, 2023

- 종이배 위의 세 사람. 작가와 작가의 자녀들이 서울에서 제주도로 와서 임시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린 작업. 종이배는 언제 젖어서 가라앉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설정했다. 뭔가 불안한 타지 유목생활에 대한 단상이다. 왼쪽이 아들, 중간이 딸, 오른쪽에 어깨를 움츠리고 겁먹은 사람은 작가의 모습.



연기

53×45cm, Oil on canvas, 2023

-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붓들이 열을 식히는 중. 붓은 앞서 언급했듯이 작가의 모습이기도 하다.



다이빙

53×45cm, Oil on canvas, 2023

- 유채꽃밭으로 다이빙. 이 작업은 작가가 식물 추상을 하게 된 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업. 언제나 우거진 풀 속으로 다이빙을 꿈꾸는 작가의 모습.



샴페인

35×27cm, Oil on canvas, 2023

- 샴페인의 버블을 여름 내내 제주와 안동 등지에서 보이던 배롱나무의 꽃으로 표현.